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학 번	201**081	성 명	권채연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EAH JENA	파견학기	2016년 1학기
소요경비	1200만원				
주거	기숙사(월 30만원정도)				
룸메이트	독일인 남자 1명, 카자키즈스탄 여자 1명				
기숙사 내 한국인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명 내외				
파견대학 정보	Friedrich Schule Jena 대학에 소속된 Fachhochschule Jena 대학교. 응용과학대학.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에는 보통 주변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갔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항공기 관련한 박물관을 많이 가려고 노력했다.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나라들로 여행가기 좋았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 박물관도 가 보고 에어쇼도 가며 내 꿈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예나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여자분이 멘토를 맡아주셔서 비자관련 문제나 보험, 학생증을 만들 때 도움을 주셨다.				
전공	Scientific Instrumentation				

수업 스케줄	전공 두 개와 독일어, 영어 수업을 들었다. 영어는 technical english 라고 적혀져 있어서 전공에 관련된 기술쪽의 영어를 배울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냥 토론같은걸 하는 평범한 영어 수업이었다. 독일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잘 해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토론 연습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이 되어서 이젠 말하기에도 자신이 생겼다. 전공은 Scientific Instrument 와 FEM을 들었는데 FEM만 전공으로 인정될 듯 하다. FEM은 Ansys와 Optislang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석하는 과목이었고 Scientific Instrument는 측정을 할 때 쓰는 기구들을 공부하는 과목이었다. 독일어는 가장 낮은 레벨인 A1 수업을 들었다. 덕분에 이제 자기소개와 주문같은 일상 생활에서는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FEM 교수님은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외국 대학교 교수님 같았다. 수업중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라서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다. 
학생할인 관련	독일은 학생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이다. 우리 주의 대학교에 다니며 학생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 안의 모든 교통이 무료이다. 그래서 학생증을 들고 우리 주의 소도시들도 기차타고 놀러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할인을 받으려면 국제학생증을 만드는 것이 좋다.
ISIC카드 활용	학교에서 무료로 학생증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해서 무료로 만들어갔다. 일단 출금수수료가 가장 적다. 또 유럽 여행을 다니며 갈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할인이 정말 많이 되는 편이다.
영어공부	혼자 여행다닐때도 항상 영어를 써야 하고 수업중에도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좋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토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로 토익 공부를 해야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한다.
여행	한달에 일주일은 꼭 여행을 다녔다. 가장 재밌었던 여행은 파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항공 우주 박물관에 갔을때였다. 파리에서도 한참 떨어진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날씨도 너무 안좋아서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힘들었던건 다 잊을 정도로 좋았다. 유럽에 있는동안 가장 좋았던 점이 많은 나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독일 특성상 주변 나라로의 여행이 편했고 교통편도 많았다. 심지어 벨기에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편도 6000원이었다. 프라하도 버스타

	고 4시간만 가면 됐다. 버스타고 몇시간만 가면 분위기가 전통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나온다는 점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교통	왕복 항공은 로마로 in-out해서 알리탈리아 항공 직항으로 80만원 정도에 구매했다. 유럽을 다니면서는 기차, 비행기, 버스, 택시 모두 타 보았다. 비행기는 저가항공인 만큼 이착륙이 너무 불안정해서 무서웠다. 항상 착륙하고 나서는 무사히 도착했다는 생각에 박수를 치면서 비행기에서 내렸다. 기차가 가장 좋았지만 저가항공정도의 가격이거나 더 비쌌고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칸이 좌석과 떨어져 있어서 도난의 위험이 있다. 버스는 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택시는 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 5분정도 탔는데 한화로 25000원 정도를 냈다.
날씨	내가 살던 예나는 7월 말까지 20도 초반을 유지할 정도로 추웠다. 내가 있는동안 30도를 넘긴적이 두 번밖에 없다. 왜 에어컨이 없는지 알것같았다. 비가 자주 오지만 많은 양이 내리는건 아니고 금방 그치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외인턴	독일에 사는 반년넘는 기간동안 너무 외로웠다. 다시는 해외에 두달 이상 체류할 생각은 없다.
추신	독일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좋았지만 역시 난 한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보완점	예나는 기숙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엔 집을 구하는게 힘들다고 들었다. 학교측에서 모두가 다 함께 살만한 집을 구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다.